

## 가마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

아이치현 중부에 있는 해변 도시 가마고리는 경치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. 미카와 만에 위치해 있으며, 나고야에서 기차로 약 45분 거리에 있습니다.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는 380m 길이의 육교로 본토와 연결된 작은 섬인 **다케시마**입니다. 이 다리는 섬 전체가 숲으로 뒤덮인 12세기 **야오토미 신사**의 도리이 문으로 이어집니다. 다리의 본토 끝을 둘러싸고 있는 리조트 지역에는 두 곳의 유명 호텔, 온천탕, 수족관, 공원, 박물관, 긴 해변 산책로, 미카와 만의 해산물 같은 지역 특산물을 제공하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습니다. 다케시마 지역은 미카와 만 국정공원의 일부입니다.

가마고리와 다케시마가 휴식과 관광 장소로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나고야 출신의 사업가 다키 노부시로(1868-1938)가 다케시마 인근 해안에 여관을 지었던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다니자키 준이치로(1886-1965)와 노벨상 수상자 가와바타 야스나리 (1899-1972) 등 유명 작가들이 다키의 여관인 도키와칸에 머물며 가마고리의 잔잔한 바다와 해변, 온천을 즐겼습니다. 그들의 사례와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다케시마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.

도키와칸은 앞서 언급한 문학인에 초점을 맞춘 박물관으로 대체되었지만, 숙박하면서 이 지역의 유산을 느껴보고 싶다면 유서 깊은 **가마고리 클래식 호텔** 객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. 다케시마와 미카와 만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이 호텔은 1934년 가마고리 호텔로 문을 열었으며, 성에서 영감을 받은 본관과 부지 내 3개의 별관이 보존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다케시마 인근의 또 다른 유명한 호텔은 바다 전망과 온천탕으로 유명한 해안가에 있는 **다케시마 호텔**입니다.

다케시마 호텔 옆에는 **다케시마 수족관**이 있습니다. 미카와 만과 그 너머의 해양 생물을 소개하며, 특히 심해 어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가마고리는 아이치현에서 유일한 심해 어선단의 모항으로, 수심 700m 정도에서 어획되는 어종이 이 도시의 요리에 눈에 띄게 등장하며, 얇은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, 고품질의 소고기, 과일 등도 현지 식재료로 사용됩니다.

**순제이엔**은 다케시마로 가는 인도교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, 후지와라노 순제이(1114-1204)를 기념하는 곳입니다. 순제이는 다케시마에 야오토미 신사를 세웠고, 이 지역의 총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마고리가 된 정착지를 세웠습니다. 공원에 있는 순제이 동상 근처에는 가마고리의 섬유와 의류 생산의 오랜 역사를 배우고 전통 섬유 제조 기술도 체험할 수 있는 **다케시마 공예관**이 있습니다.

다케시마 바로 너머에는 더 큰 무인도인 **미카와오시마** 섬이 있으며, 해변을 즐기고자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여름에는 임시 레스토랑과 가게를 열고 있습니다. 미카와오시마는 다케시마 수족관 옆에 있는 부두에서 배를 타고 갈 수

있습니다. 가마고리 외곽과 서쪽의 니시우라 반도에도 여러 해변이 있습니다.